

"노동·복지 개혁 단행... 나는 총선서 패했지만 독일 경제는 부활"

조선일보 2018년 5월 18일 김재곤 기자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리더와의 대화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독일 총리
개혁의 성과는 몇년 뒤 나타나... 두렵더라도 낡은 제도 고쳐야
통일 비용 많이 들지만 결국 모두에 이익... 南北도 인내심 필요

"개혁은 지금 단행해야 하는데 성과는 지금이 아닌 3년, 5년 뒤에 나타납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총선에 패배해도 (개혁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리더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회로 자신이 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독일의 개혁 정책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개혁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한 리더는 낙선할 수 있다"며 "내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개혁을 선택한 이유로 "낡은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독일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소위 '어젠다 2010'으로 대변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복지제도를 손보는 등 독일 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당시 개혁은 독일 경제 부활에